

농어촌公 강원, 강릉지역 가뭄 대책 '머리 맞대'

✎ 김미성 기자 | ⌚ 승인 2025.07.18 10:51

평균 저수율 평년 대비 절반 수준인 36.4%



가뭄 대책으로 설치한 오봉저수지 간이양수장 방문. /사진-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

[투어코리아=김미성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는 17일 강릉지사 오봉지소 회의실에서 강릉지역 가뭄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.

이날 회의는 이재천 농식품부 농업기반과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김명일 강원지역본부장, 이형섭 강릉지사장, 김동식 강원도 친환경농업과장, 김경태 강릉시 농정과장 등 유관기관 농정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하였다.

지난 13일부터 강릉지역에 약 97mm의 비가 내렸지만 장기간에 걸친 가뭄으로 강릉지사 관할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 대비 절반 수준인 36.4%에 그치고 있다.

또한 강릉시 주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30.3%(평년대비 44.8%)로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생활용수 제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.

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강릉지역 가뭄 극복을 위한 단기, 중장기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으며, 회의를 마친 후 금번 가뭄 대책으로 설치한 오봉저수지 정수지 간이양수장을 둘러보았다.

이날 회의에서 김명일 강원지역본부장은 매년 반복되는 강릉지역 가뭄의 근본적 해결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, 이형섭 강릉지사장은 전 직원이 가뭄에 총력 대응하여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.



김미성 기자